

익산 미래비전 제시할 정책자문위원회 출범

익산시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이끌어갈 자문단 역할 수행
현장감 있는 정책 제안과 전문성 갖춘 자문으로 변화 새바람 기대

익산=고운영 기자

익산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8기 정책자문위원회가 출범했다.

시는 8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의 첫 정기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이병렬 우석대학교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구성해 대학교수, 연구기관, 전 시의원, 시민단체 전문가 등 20여명위원을 위촉했다.

새롭게 출범한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는 다문화, 청년 분야 지역 전문가 참여 비중을 확대해 과감한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지역의 현실과 상황을 반영한 시책 제안과 정책실행 강화를 도모한다.

이번 회의는 시 주요 추진정책, 자문위원 제안사업에 대한 발표와 토론, 시정발전 신규정책 자문 순으로 진행됐다.

이병렬 위원장을 비롯한 정책자문위원들은 전국적인 선도사례로 손꼽히는 지역화폐 다이로움 확대 발행, 나눔공간·기부공간 운영을 통한 위기가구 지원 등 주요 추진정책 설명에 적극적 관심과 참여로 열띤 토론을 이끌어갔다.

마을자치연구금 전국 제1호 마을 출범 등 시민체감형 지원사업부터 익산시 대전환을 향한 대규모 프로젝트인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 KTX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구축 등 익산시의 미래가 걸린 핵심 동력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언을 제시했다.



정책자문위원 제안사업으로는 청년 인재 정착 도모와 인구 유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청년 친화형 도심 융합 특구 조성, 지역관광 안내 체계 개선을 위한 임기 쉬운 관광 안내 체계구축 등에 대한 설명과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정현을 시장은 “그동안 정책자문위원회가 익산시 변화와 발전을 위한 든든한 조안자 역할을 해온 만큼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도 아낌없는 조언과 집단지성을 통해 시정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정책자문위원회는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 학계 및 연구기관, 시민단체 중심의 외부전문가 25명 이내로 구성되며, 2년의 임기 동안 익산시 주요 현안에 대한 자문과 정책 제안의 역할을 하게 된다.

장수군, 2022년도 국가예산 확보 노력 ‘결실’

장수군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바탕으로 예산 4,000억원 시대를 순항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1,442억원을 확보했다.

군에 따르면 2022년도 국가예산은 전년도 대비 94억원(7%) 증가한 1,442억원으로 각종 현안의 신속한 해결과 군 미래발전을 위한 든든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코로나19 관련 예산 등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예산 확보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영수 군수를 필두로 중앙부처 단계에서부터 10~11월 국회단계까지 지역구 안호영 국회의원, 예결소위 이원택 국회의원, 신영대 국회의원, 환노위 윤준병 국회의원, 기재위 정성호 국회의원, 김수흥 국회의원 등을 만나며 수차례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건의했다.



내년도 국가예산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장수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213억원)을 시작으로 △선도산립경정단지(75억원) △백두대간급남호남정맥생태축복원(58억원) △22년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51억원) △외림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45억원) 등이다.

/유기종 기자

무주군, 군립요양병원 건립 탄력

무주군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하반기 특별교부세 19억 원을 확보해 군립요양병원 등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무주군립요양병원 건립 10억 원과 안성면 돈당마을 진입교량 설치 사업 9억 원이다.

군립요양병원 건립은 매년 노인 인구의 증가 추세와 치매환자 비율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인접 지역에 종합병원, 요양병원 등이 개설되지 않아 노인 대상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상태다.

치매 전문치료와 재활서비스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열악한 의료 인프라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된다.



군은 교부세 확보로 치매 전문 병동을 포함한 군립요양병원 개설에 탄력을 받게 되면서 노인 전문치료와 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된다.

무주는 당산리 일원에 건립될 군립요양병원은 126병상 규모(지하1층 지상3층)로 오는 2023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형열 기자

장수군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 참여자 치료만족도 높아

장수군은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진행하고 있는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이 참여자들의 인지기능 개선을 향상시켜 높은 치료만족도를 나타냈다고 8일 밝혔다.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은 군과 군한의사회가 2020년 2월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 2년째 이어가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간 군 거주 60세 이상 치매 고위험군인 경도인지장애자 및 인지저하자 60명을 선정해 관내 지정 한의원에서 한약 및 침구 치료를 실시했다.

한약재는 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약재를 우선 사용해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했다.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 진행 후 군치매안심센터와 한의사회에서 공동 실시한 결과보고에 따르면 참여 대상자들은 인지기능 평가에서 지남력, 기억력, 구성 능력, 주의력, 언어능력, 판단력 등 인지선별검사(CIST) 결과 평균 4.09점이 향상됐다. 대상자 60명 중 인지기능 유지 및 개선은 51명으로 86.4% 결과를 나타냈다.

/유기종 기자

무주군 가족친화 공공기관 재임증

무주군이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기관에 재선정됐다.

군은 지난 9월, 10월부터 서류 및 현장심사와 가족친화 경영만족도 조사 등을 거쳐 최근 가족친화 인증기관 재인증 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4년 11월까지 가족친화제도 모범 운영 공공기관 자격을 획득했다.

가족친화 인증은 자녀의 출산·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최고경영자 인터뷰,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노력해 온 기업과 기관에 부여 되는 제도다.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기업을 발굴·인증해 일과 생활이 균형 잡힌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08년 도입 됐다.

인증심사는 한국경영인증원에서 실시하며 자녀출산,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 등을 심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인증 한다.

가족친화 재인증은 현장 심사와 최고경영자 인터뷰, 재직자 설문조사 등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군은 이번 재인증으로 2016년 최초 가족친화인증을 취득한 이후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해 2024년까지 인증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이형열 기자

익산시, 고병원성 AI 최고수준 방역

21일까지 가금 관련 시설 이동통제

익산시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행 방지를 위한 최고 수준의 방역체계를 유지한다.

시는 만경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서에서 병원성 AI 확진 판정됨에 따라 오는 21일까지 가금 관련 시설, 관련 종사자나 축산차량 등의 일시 이동 제한 명령을 발령하고 일제 세척과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6일 만경강 철새도래지 출포면 일원 야생조류 분변시료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되자 방역대 내 사육가금에 대한 이동통제, 검출지 중심 반경 500m 내 사람·차량의 출입 금지 등을 위한 통제조치를 설치, 진입로마다 현수막·안내판 등 설치 등 차단방역을 강화했다. 시는 이에 앞서 이같은 고병원성 AI 발생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난달 초부터 최고 수준의 방역체계로 돌입한 상태다. 지난달부터 시에 진입하는 모든 축산차량은 거점소독시설(4개소)에서 소독·소독필증 소지 후 운행토록해 외부로부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초소점검반을 편성 1일 1회 이상 소독차 회색배수, 소독필증 발급, 노면 동결 방지제 살포 여부, 근무자 수칙준수 여부 등의 점검과 감추위 대비 초소 근무자 근무요령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관내 가금류 사육농가 142호에 대해 읍면동 전담관 52명을 지정해 매일 소독 여부,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농장별 일대일 방역관리 책임제를 시행 중이다.

그리고 하림, 참프레, 사조 등 계열사 농장에 대한 임상예찰, 방역 조치사항 이행 여부 등을 계열사 질병관리팀과 연계 상호 협력 대응하고 있다.

/고운영 기자



익산시, 아동급식 만족도 우수

익산시가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지원하는 아동급식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하반기 아동급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만족도가 전년 대비 2.1% 상승한 83.7점이 나왔다고 밝혔다.

시는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일 시청 회의실에서 ‘2021년 하반기 아동급식위원회’를 개최해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지난 10월 12일부터 11월 5일까지 시 민원콜센터를 통해 아동급식 대상자 중 무작위 추출 372명을 대상으로 부식양, 메뉴, 선호 식품 유형, 위생상태, 친절도 등 아동급식(부식배달) 서비스 전반적인 만족도 평가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약 84%가 아동급식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특히 위생상태와 친절도에서 92% 정도의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만족도가 68.6%로 저조하게 나타난 메뉴구성은 신선식품 비중 확대, 메뉴 식단표 다양화 등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운영 기자

전북의 중심을 잇는,
새전북신문 LED전광판광고!

Full Color LED 고화질의 광고영상으로 시각적 주목도가 높아
효율적인 브랜드의 이미지 구축이 가능합니다.

· 위치 :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452-8 재중빌딩

전광판 광고문의 010-3654-5030
063)230-5714